	맥스는 항상 뽀뽀하고 싶어 해요. 지은이 마르틴 발트샤이트 übersetzt von Min-Jung Ramm
	맥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. 그는 키가 커요. 그는 힘도 세요 그는 잘 생겼어요
	하지만 맥스는 더 원해요. 맥스는 뽀뽀하고 싶어해요. 모두에게.
	예를 들어 나비에게
	또 물고기에게
	또는 새에게
	맥스는 모든 동물들을 사랑해요.
	코끼리들.
	악어들.
	맥스는 껴안는 것도 좋아해요.
	쓰다듬고....

	그리고 재워 줘요.
	때때로 그는 친절하게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해요.
	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뽀뽀하는 것 이예요 온 종일
	밤의 절반동안에도
	그러던 어느 날,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.
	„아 이제 아무도 뽀뽀하고 싶지 않은 거야?“
	„네 물어보셨나요?“
	?!
	맥스는 이런 동물을 본적이 없었어요. 그는 이 동물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.
	„그래? 원해요?“
	맥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는 키가 커요. 그는 힘도 세요.. 그는 잘생겼어요.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.